



## 남원소방서, 어린이 안전뉴스 공모전 시상식

남원소방서와 남원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신병기 남원교육장, 양순주 소방서장, 학생 및 학부모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어린이 안전뉴스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관내 초등·중등생 10팀이 참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상황을 소재로 2분 분량의 창의적인 안전뉴스 영상을 제작하여 경쟁했다.

교육장 상에 6점, 소방서장 상에 10점이 수여된 이번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에는 이백초와 인월중팀이 차지했으며, 수지초와 하늘중 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안전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을 통해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남원소방서와 남원교육지원청이 공동 주관한 행사이다.

남원소방서와 남원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통해 어린이 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설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마하의료회, 김제 망해사에서 의료봉사 펼쳐

김제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국가자연유산 명승 1호로 지정된 김제 진봉산 망해사가 불자 의료 봉사단체를 초청해 지난 20일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의대 교수, 약사, 물리치료사 등 불자 의료인들이 구성된 마하의료회 회원들이 망해사를 찾아 신도와 지역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내과·부인과 진료 및 연고, 파스 등 의약품 지원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다.

의료 봉사를 개최한 망해사 주지 우림스님은 “이번 의료 봉사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불사”라며 “효행사상을 확산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열진봉면장은 “망해사 일원이 지난 6월 18일 국가자연유산 명승 1호로 지정됨과 함께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명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망해사에서 펼쳐진 의료 봉사는 올해부터는 7월·12월 셋째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농아인협회 진안군지회, 하계수련회 개최

농아인협회 진안군지회(지회장 이용원)는 19일 용담댐 조각공원 일대에서 하계수련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회원 60여 명이 참여해 진안군 용담면 용담댐 조각공원에 전시되어 있는 창작품 관람과 전시관 방문 등 야외체험활동을 통해 회원들 간 친목을 다졌다.

이용원 회장은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대화상대가 한정돼 있는 농아인들은 평상시 외로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다”며 “이번 수련회를 통해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농아인협회 진안군지회는 매년 인식개선, 하계수련회 등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위기기구에 다양한 도움의 손길 전해

## 정읍시 희망복지지원단, 민관협력 지역자원 연계 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정읍시 희망복지지원단은 복합적인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행복 지킴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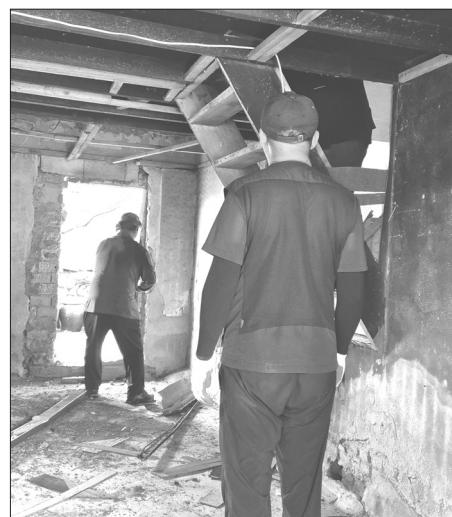
희망복지지원단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기구 A 양(10)을 조기 발굴해 고난도 통합시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6일에는 조록우산어린이재단과 KBS1 ‘동행’ 방송을 통한 모금 활동을 시작했고, 지역 내 민간 지원을 연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후 시는 M건축사무소, 시 주거복지센터, 시 자원봉사센터와 협업 회의를 통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걸쳐 방대한 생활 쓰레기와 슬레이트 철거 작업을 실시했다.

앞으로 아동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전면 리모델링해 퀘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복지 사각지대 위기기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M건축사무소, 시 주거복지센터, 시 자원봉사센터, 정읍의용소방대 연합회,



정읍성광 사랑의 봉사단, 삼화페인트, 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봉사자들이 참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완주군 인구가족과, 호우피해지역 복구 총력

완주군 인구가족과가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화산면을 찾아 수해복구 작업을 실시했다.

지난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인구가족과 직원 24명은 침수된 주택 짚기류 정비 및 토사 제거, 폐기물 처리 등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힘을 쏟았다.

주택 침수를 입은 주민은 “한 평생을 살아온 터전이 순식간에 망가져 역성이 무너졌지만 공무원들이 도움을 줘서 힘이 난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최옥현 인구가족과장은 “수해민들이 아픔을 달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현장지원을 하게 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복구작업이 완료돼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매일 부서별로 직원을 파견해 수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 부안군, 민·관 합동 청렴 실천 캠페인 실시

부안군청 해양수산과는 지난 18일 곰소젓갈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박진성)와 함께 곰소젓갈센터에서 청렴한 부안을 만들기 위한 청렴 실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젓갈축제위원회 위원 10여명이 참여하여, 부안 청렴 5무운동(갑질행정, 불친절, 부당지시, 금품수수, 향응접대)의 확산 방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며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김성열 해양수산과장은 “민·관이 협력한 청렴활동을 계기로 삼아 청렴한 마음가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소통하는 행정, 청렴한 부안군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김제 교월동 자치위, 사랑 가득 옥수수 나눔 행사

김제시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첨)가 지난 18일 주민자치위원회 특색사업인 사랑 가득 옥수수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20여 명이 참여해 직접 수확한 옥수수 100여 망을 포장작업 후 관내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을 경로당에 전달했다.

시립의 옥수수 나눔행사는 장미와 무더운 날씨로 인해 지친 어르신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며, 지난 5월 관내 율교마을 인근 토지에 옥수수를 심고 순치기와 거울 서비스를 통해 정성스럽게 재배하고 나누며 작지만 큰 행복을 전하고 있다.

최첨의 주민자치위원회장은 “위원들의 땀과 노력으로 직접 재배한 소중한 옥수수를 나눔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도 나눔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현숙 교월동장은 “비쁜 와중에도 옥수수 나눔행사를 준비해준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드리며, 교월동에서도 더 많은 나눔사업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민자치위원회는 옥수수 나눔 사업을 비롯해 김장나눔 행사를 등 특색사업을 진행, 지역공동체 형성의 중심에서 선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전주매일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842-2725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설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56	정읍지사 536-3787	
010-2333-4791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호지지사 010-8645-9935	의산지사 868-9923	고성지사 563-6999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속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